

2017년 6월 24일 서울시 7급 한국사(㉞책형)

해설 :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1. 정답 : ②

② 무신정권이 성립되면서 2군 6위의 지휘관인 상장군, 대장군으로 구성된 중방이 국정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권력 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교정도감, 도방 등이 설치되면서 중방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① 무신정변 이후 최충헌 집권 이전까지도 재추가 국정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의례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의 중대사는 대부분 중방에 의해 처리되었다. 그러나 최씨 무신집권기에는 중방이 국정 논의에서 배제되고 중방을 약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의도적으로 재추를 국정에 참여시켰던 것으로 보이며, 재추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어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최우가 강화도 천도를 결정할 때도 자신의 집에 재추들을 모아 논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③ 최충헌과 최우가 설치한 진양부 등의 부(府)는 왕자와 왕비, 공주에게 설치한 '부'와 동일한 것으로, 최씨정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인 장치였다. 또한, 이러한 부의 설치로 인해 최충헌과 최우는 왕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았다. ④ 『상정고금예문』은 12세기 인종 때 최윤의 등이 지은 의례서이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따르면 강화도 피난 시절에 최우가 보관하던 『상정고금예문』 50권을 28부 인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2. 정답 : ③

③ 신라는 불교의 힘으로 국가를 지킨다는 호국불교가 유행하였고, 신라 후기 민간 사회에서는 현실 구복적 신앙과 연결되어 질병 치료나 자식 출산 등을 기원하는 현실 구복적 밀교가 유행하였다.

① 고구려 보장왕 때 연개소문은 불교 세력을 누르기 위하여 도교를 장려하기도 하였으며, 보덕은 도교의 불로 장생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 열반종을 개창하였다. ② 백제에서는 계율을 내세우는 율종이 발달하였고, 백제의 겸익은 성왕 때 인도에서 율종 관계의 불경을 가지고 돌아와서 번역까지 하였다. ④ 화랑도는 미륵 신앙과 관련되어 화랑의 우두머리가 도솔천에서 하생한 미륵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3. 정답 : ①

밀줄 친 '이 사람'은 경(敬)과 의(義) 사상을 강조한 '남명 조식'이다.

① 북인은 조식의 학통을 계승하였으며, 경(敬)과 함께 의(義)를 강조하여 절의를 중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임진왜란 때 광재우, 정인홍 등 많은 의병장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② 이황과 이기심성론에 관해 사단칠정 논쟁을 벌인 것은 고봉 기대승이다. ③ 『동호문답』이나 『만언봉사』 등의 시무 관련 상소를 올려 다양한 사회 경장론을 제시한 인물은 율곡 이이다. ④ 이황이 주자의 주요 편지글을 모아 편찬한 『주자서절요』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다.

4. 정답 : ①

ㄱ.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하였다(371). ㄴ. 5세기 초반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군사를 파견하여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게 하였다(400). ㄷ. 5세기 후반 고구려 장수왕은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475). ㄹ. 5세기 후반 백제 동성왕은 신라 소지왕과 결혼 동맹을 맺어 나·제 동맹을 강화하였다(493).

5.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서울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등장한 ‘모던걸’에 대한 내용으로 1920년대 이후의 상황에 해당한다.

② 조선은행(1896), 한성은행(1897), 대한천일은행(1899)은 모두 한일 병합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화폐정리사업으로 몰락하였다. ① 1920년대에 출간된 『신여자』, 『신여성』, 『삼천리』 등의 대중 잡지는 당시 유행하는 패션이나 여성들의 화장법, 화장품 등을 소개하며 신여성 사이의 유행을 선도하였다. ③ 1921년 조선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을 발령하며 조선도 일본과 같은 좌측 통행이 일반화되었다. ④ 박영희, 김기진 등이 중심이 되어 1925년에 사회주의 계열의 문화 예술 운동 단체인 카프(KAPF)를 조직되었다.

6. 정답 : ③

ㄱ.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1388년, 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보를 위한 파전법 실시는 1391년, ㄷ. 이방원, 조인규 등이 새로운 왕조 개창에 반대하는 정몽주를 살해한 것은 1392년의 일이고, 정몽주 등의 반대파가 제거된 뒤 ㄷ. 공양왕이 폐위되고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되며 조선이 건국되었다.

7. 정답 : ③

ㄴ. 대한 제국은 전제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헌법으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1899. 8). 대한국 국제를 통해 국가의 모든 권한(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이 황제에게 집중되었으며, 군주의 전제권은 더욱 강화되었다. ㄷ. 고종은 광무개혁을 단행하면서 양지아문(1898)과 지계아문(1901)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1899~1904)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ㄹ. 대한 제국은 1900년 만국 우편 연합에 가입하여 외국과도 우편물을 교환하였고, 파리에 만국 박람회 대표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ㄱ. 대한 제국은 1897년 목포 개항, 1899년 군산을 개항하였으나, 원산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에 따라 1880년 군사적 목적으로 개항되었다.

8. 정답 : ①

① 4·19 혁명 이후 각 계열을 망라하는 혁신 세력의 단합이 논의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하며

총선거에서 참패하였다.

②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어 의원 내각제 개헌을 단행하여 총선거가 실시되고, 그 결과 민주당이 승리하여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제2공화국은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민주당 정부를 구성하였다. ③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되었고, 뒤 이어 시민들도 이에 동참하면서 전국적인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④ 제2공화국 시기에는 학원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더불어 당시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남북 교류와 통일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대두하여 학생들과 혁신 정당이 주도하는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61년 5월에는 18개 대학의 단체가 모여 '민족 통일 전국 학생 연맹 결성 준비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남 전기, 이북 쌀"과 같은 구호를 내세우며 남북 학생 회담의 개최를 제기하였다.

9. 정답 : ④

밀줄 친 '이 승려'는 광종 때 귀법사의 주지로 임명되고 남악과 북악의 통합을 위해 노력한 '균여'이다.

ㄷ. 신라 말에 화엄종은 해인사에 주석한 희랑과 관혜가 서로 대립하면서 각각 북악과 남악으로 나뉘어 다투었는데, 북악의 범존인 균여가 남·북악과의 교리를 통합하여 융화불교인 성상융화사상을 성립시켰다. ㄹ. 균여는 대표적인 향가 작가로서, 현재 『보현십원가』 11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불교의 찬가로서, 신도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하였다.

ㄱ. 의천은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대장경의 주석서를 모아 교장(속장경이라고 함)을 간행하고, 불서 목록으로서 『신편제종교장총록』을 작성하였다. ㄴ. 『천태사교의』는 고려 광종 때의 승려 제관이 천태종의 교리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쓴 책이다.

10. 정답 : ③

③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 일본은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에 나섰다. 러시아 역시 한국보다는 만주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문제로 인해 일본과 충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일본 공사 고무라 주타로가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였고, 이를 토대로 1896년 5월 14일 베베르-고무라 각서가 체결되었다.

① 청이 조선과의 조약 체결을 중재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러시아 정부는 직접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조선에 외국인 고문으로 파견된 뮐렌도르프의 도움을 받아 1884년 조·러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②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점령한 것은 1885년의 일로 베베르-고무라 각서 체결과는 시기상 관련이 없다, ④ 일본이 러·일 전쟁 승리 후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여 조선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11. 정답 : ②

ㄱ. 조선 효종 대의 나선 정벌에 대한 서술이다. 시베리아 지방의 러시아 세력의 확장에 위협을 느낀 청은 정벌군을 파견하면서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선에서는 변급(1차, 1654), 신유(2차, 1658) 등을 지휘관으로 하여 두 번에 걸쳐 군대를 파견하였다. ㄴ. 윤휴는 현종 대(1674, 현종 15년)부터 청나라에 대한 북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숙종 즉위 초(1675)에 청의 정세 변화(삼변의 난, 오삼계의 난)를 이용하여 북벌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ㄷ. 안용복은 조선 숙종 대인 1693년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일본으로 잡혀 가서 막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는 서계(書契)를 받아 내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안용복은 1696년 어부들과 함께 울릉도에 나갔다가 또다시 고기잡이를 하는 일본 어선을 발견하였다. 안용복은 이들을 송도(松島)까지 추격하여 문책하고, 스스로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島監稅官)'이라 자칭하며 일본 백기주(伯耆州, 호키 주)의 태수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 돌아왔다. ㄹ.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 숙종 대인 1712년에 세웠다.

12.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조선 세조 대의 방어 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다.

② 사병 혁파, 도평의사사 폐지, 중추원의 삼군부화는 조선 태종 대의 사실이다.

① 조선 세조 대 회령부사(會寧府使)를 지내다가 상(喪)을 당하여 관직을 사퇴한 함흥부 유향소 별감 이시애가 함경도 지방 차별에 반기를 들고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다(1467).

③ 조선 세조 대 지방재정과 군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종 둔전을 증설 또는 신설하였다. 세조 3년에는 역둔전을 평안도에 새로 설치하여 늪전(廩田)의 부족을 보충하게 하였다. 세조 4년에는 전국 관둔전의 면적을 종전의 두 배로 증액하여 목관(牧官) 이상 20결, 지관(知官) 이상 16결, 현관(縣官) 12결로 각각 정하였다. 세조 7년부터 11년까지는 국둔전제를 부활하여 평안도의 광산, 안주 등의 황무지에 총 15처를 설치하였고, 여러 둔전은 모두 소재지 군인이 경작하였다. ④ 『국조보감』은 조선 시대 역대 왕의 업적 가운데 선정(善政)만을 발췌하여 묶은 역사서로서 조선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하였고, 『동국통감』의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다.

13.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신문왕이 681년에 즉위 후 한 달 만인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내린 교서이다.

④ 독서삼품과의 실시는 원성왕 대의 사실이다.

① 신문왕은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기 위한 국학을 설립(682)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집권적 관료 정치가 발달하면서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다. ② 신문왕은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였고,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녹읍을 폐지(689)하였다. 이는 귀족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었다. ③ 신문왕은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수도가 동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5소경을 설치하였다.

14. 정답 : ①

ㄴ. 4·19 혁명의 발발은 1960년의 사실이다. ㄱ. 5·16 군사 정변은 1961년의 사실이다. ㄷ.

10월 유신은 1972년의 사실이다. ㄷ. 3·1 민주 구국 선언은 1976년의 사실이다. ㄹ.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의 사실이다. ㄴ. 6·29 민주화 선언은 1987년의 사실이다.

15. 정답 : ④

ㄱ. 대조영은 698년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을 근거지로 오동산성을 쌓고 나라를 세워 진국(震國)이라 하였다. 이후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국호를 발해로 고쳤다. 또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강조하여,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라 칭하기도 하였다. ㄴ. 794년부터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은 궁성, 황성, 외성의 3겹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궁성과 황성을 제외한 성 안의 모든 구역은 황성 정중앙의 남문으로부터 외성 남문으로 이어지는 주작대로(폭 110m)를 중심으로 하여 동구(東區)와 서구로 나누어져 있고 각 구는 정연한 이방(里坊)들로 다시 나누어져 있다. 이처럼 발해 상경성은 중국 당나라 수도 장안성의 제도를 수용하면서도 개별 건물의 배치 등에서 문화적 독자성을 발휘하는 등 정연한 계획 아래 형성된 도시였다. ㄷ. 발해는 옛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아 말을 타며 활쏘는 것을 좋아하여 수렵활동이 활발하였다. 발해에는 오늘날의 하키와 비슷한 타구(打球)의 습속이 있어 일본에 간 발해 사신들이 일본 궁정에서 타구를 하였다는 기록이 일본에 전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폴로와 마찬가지로 말을 타고 공을 치는 격구라는 놀이도 성행하였는데, 이 격구는 『요사』 소효충전(蕭孝忠傳)에 의하면 발해인들이 무예를 연마하는 일환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ㄹ. 『신당서』 발해전에는 발해의 중요한 특산물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곤포,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술빈부의 말, 현주(顯州)의 포(布), 옥주(沃州)의 면, 용주(龍州)의 주(紬), 위성(位城)의 칠, 노성(盧城)의 쌀, 미타호의 붕어가 있고, 과일에는 환도(丸都)의 오얏, 악유(樂游)의 배가 있다.”

16. 정답 : ②

백제의 역사서인 『서기』는 박사 고흥이 근초고왕(346~375) 대에 편찬하였고, 신라 거칠부의 『국사』 편찬은 진흥왕 대인 545년이며, 성덕대왕 신종의 완성은 혜공왕 7년(771) 대의 사실이다.

②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은 선덕여왕 대의 사실로 (나)에 들어가야 한다.

①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을 보여주는 비석으로 일반적으로 장수왕(412~491) 대에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③ 고구려 태학박사 이문진은 영양왕 대인 600년 『유기』를 간추려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④ 석굴암은 경덕왕 대인 751년에 건축되었다.

17. 정답 : ④

④ 조선 왕조 국왕들은 창덕궁과 창경궁, 두 궁궐을 유지하면서, 두 궁궐을 오가며 지냈다. 이러한 조선 왕조의 궁궐 경영 내지 이용 방식을 양궐 체제라고 한다. 이러한 양궐체제는 조선 태종 대 정립되었다. 한편 법궁(法宮)은 국왕이 사는 공식 궁궐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궁궐을 말하는 것으로 경복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궁(離宮)은 화재가 나거나

궁궐에 뜻하지 않은 번고가 생겼을 때, 혹은 왕이 스스로 옮기고 싶을 때 기거할 목적으로 지은 궁으로서 창덕궁, 창경궁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① 경복궁은 태조 때인 1395년에 세워져 서울의 5대 궁궐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으며, 창덕궁은 조선 태종 5년(1405),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졌다. 경희궁은 1617년(광해군 9)에 창건을 시작하여 1620년에 왕궁한 궁궐로 원래는 경덕궁으로 불렸다. ② 창덕궁 후원은 궁원(宮苑), 금원(禁苑), 북원(北苑)으로도 불렸다. ③ 외전(外殿)은 왕이 공식적으로 신하를 만나 의식, 연회 등 행사를 치르는 공간을 말하며, 조정(朝廷)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경복궁의 외전(外殿, 또는 정전(正殿))인 근정전 앞 조정 양쪽에는 신하들이 직위에 따라 서는 위치를 알려주는 품계석이 동·서 양쪽으로 줄지어 있다.

18. 정답 : ③

③ 단독정부 수립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의 지원 하에 중도파를 중심으로 좌우합작 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들에 의해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미 군정이 처음부터 좌우 합작 위원회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①, ② 1946년 개최된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면서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휴회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의 정읍 연설 등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론이 제기되자 김규식, 여운형 등의 중도파 인사들 사이에서 좌우 합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며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었다. ④ 좌우 합작 7원칙은 우익과 좌익 간에 견해가 대립하던 토지 문제와 친일파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하였다.

19. 정답 : ②

ㄴ. 『원생몽유록』은 조선 중기 문신인 임제(林梯)가 지은 한문 단편 소설로 『원자허전(元子虛傳)』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 내용은 원자허(元子虛)라는 인물이 꿈속에서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 비분한 마음으로 흥망의 도를 토론하였다는 내용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소재로 정치권력의 모순을 폭로한 작품이다. ㄷ. 이종회는 『동사』에서 단군-부여-고구려로 계승되는 정통론을 제시하면서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하여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ㄱ. 『칠정산외편』이 이슬람 달력인 회회력을 개정·증보하여 번역한 것이고, 『칠정산내편』은 원의 수시력과 명의 대통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법서이다. ㄴ. 『박통사언해』는 『박통사(朴通事)』라는 중국의 생활 풍습과 제도 등에 대한 문답을 실은 일종의 중국어 학습서인 『박통사(朴通事)』를 언해(諺解)한 책이다. 성종 때 최세진이 엮고, 1677년(숙종 3) 권대운, 박세화 등이 다시 고증하여 간행되었다. 강우성은 조선 통신사행에 참여했던 대표적 역관으로 품계가 당상관인 종2품 가선대부에 이르고 일본어 학습서인 『첩해신어』 10권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한양 사역원의 왜학 수험서이자, 역과 과거 출제 교재로 갑오개혁 때까지 쓰였다.

20. 정답 : ①

① (가) 신민부(1925)는 자유시 참변 이후 귀환한 독립군을 중심으로 북만주에서 결성되었다. 대중교적 민족주의와 공화주의를 표방하였고, 기관지로 신민보(新民報)를 간행하였다. (나) 국민부(1929)는 3부 통합 운동 과정 이후 설립된 만주에 설립된 한인 자치 기관이자 항일 독립 운동 단체이다. 국민부는 각기 단체를 인정한 가운데 통합 기구를 창설을 주장하던 3부 인사들(협의회파)을 중심으로 성립되었고, 이보다 먼저 중앙 집권적 유일당을 추구하던 3부 인사들(축성회파)을 중심으로 혁신 의회(革新議會, 1928. 12)가 북만주에서 조직되었다. (다) 1937년 7월 중·일 전쟁 발발 이후 김원봉의 조선 민족 혁명당과 김성숙의 조선 민족 해방 동맹, 유자명의 조선 혁명자 연맹, 재남경 한족회 등을 중심으로 조선 민족 전선 연맹(‘민족전선’)이 중국 난징[南京]에서 결성되었다. ‘민족전선’은 창립선언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유일 활로는 전 민족의 단결력에 의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민족의 독립자주를 완성함에 있다.”라며 민족주의적 민족 해방 운동을 강조하였다. ②, ③, ④ 정의부(1924. 11)는 통의부가 더욱 심하게 분열하는 과정에서 오동진 등 다수 지도부가 남만주를 중심으로 창립한 단체이다. 조선 독립 동맹은 1942년 중국 화북 지역의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항일 독립운동 단체이자 해방 직후 북한에서 결성된 조선 신민당의 모체가 되는 정치 단체이다. 김두봉이 주석으로, 무정과 최창익이 중심이 조직되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